

meritz 메리츠금융지주

중기 주주환원 정책 (2026년~2028년)

FAQ

2025.11

[저평가 및 자사주 매입 관련]

Q1. 저평가가 심화되는 경우 50%를 초과하는 주주환원을 진행할 것이라 하였는데, 주가의 저평가 기준에 대해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Q2. 자사주 일일 매입액을 증액하는 정확한 기준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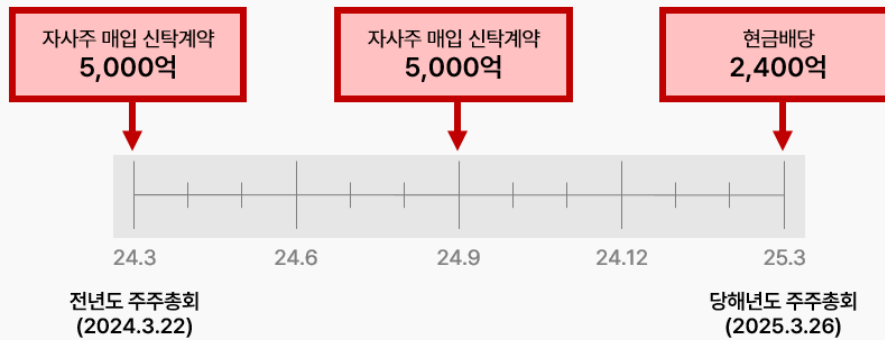
A1&2.

주가의 저평가 기준과 자사주 일일 매입액 증액 기준은 모두 내부적으로 계산하는 forward PER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가를 왜곡시킬 수 있어, 정확한 숫자를 밝히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명확한 점은, 주가가 과도한 저평가 구간에 진입하면, 연간 자사주 매입 총액을 증액하고, 증액 규모에 맞춰 일일 매입액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6월 20일과 11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자사주 일일 매입액을 확대했습니다.

[2024회계연도 주주환원]



[2025회계연도 주주환원]



[주주환원율 상향 범위 설정 관련]

Q3. 50% 원칙을 상회하여 55% 내지 60%의 주주환원율로 정책을 수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수정하진 않더라도 올해 그 비율을 명시해 주실 수 있는지요?

Q4. 올해 들어 대부분의 금융사들 주주환원율이 50%를 넘기는 상황입니다. 좀 더 공격적인 자사주매입이나 주주환원 정책(60%이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A3&4.

당사는 자본 배분 방법론을 통해 중장기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향후 3년간 주주환원율 50% 원칙을 지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주환원율 50% 원칙은 기준점이지, 상한선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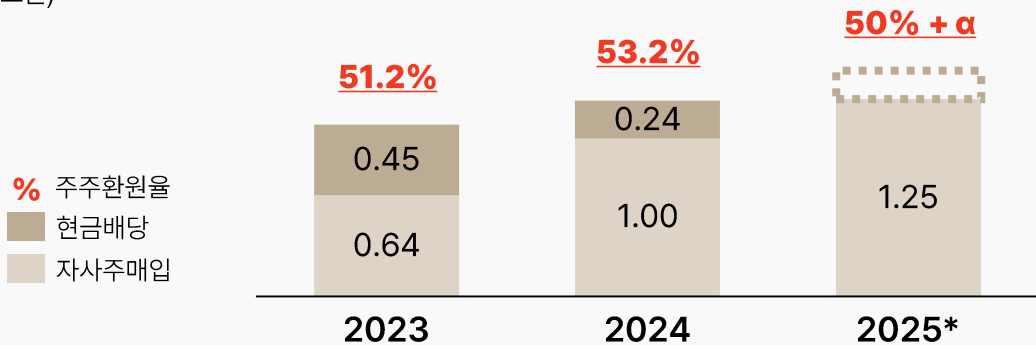
현재 진행중인 증기 주주환원 정책도 '50%'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주주환원율은 2023년 51.2%, 2024년 53.2%를 이행했습니다.

또한 지난 6월과 11월, 주가가 과도한 저평가 구간에 진입하면서 자사주 매입 총액을 증액하였습니다.

현재까지 24년 주주환원 규모를 넘어서고 있어, 올해 역시 주주환원율은 5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으로도 주가의 과도한 저평가가 지속되면, 추가 자사주 매입을 진행할 것이며, 55% 또는 60% 수준의 주주환원율도 가능합니다.

(단위: 조원)



* 2025년 자사주 매입 규모는 본 자료 업로드일(11월 24일)까지 체결된 신탁 기준

[내부투자자로 인한 주주환원 제한 관련]**Q5. 주주환원이 중단되고 내부투자자로 전환되는 기준점이 있나요?**

그런 경우 기존 환원 진행분도 즉시 중단 혹은 지연되는지,
아니면 진행 중인 환원은 진행을 하되, 추후 진행 분이 중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5.

전환되는 기준은

세후 내부투자 수익률과 주주환원 수익률(자사주 매입소각 수익률)의 우열입니다.

공시한 바와 같이, 예외적으로 M&A 등 대규모 투자기회나 내부투자자가
장기 주주가치를 극단적으로 높일 경우에는 주주환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시와 컨퍼런스콜을 통해 시장과 투명하게 소통할 예정입니다.

그런 예외적인 상황에도, 진행 중이던 자사주 매입은
신탁계약 기간이 종료(금액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지속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주주환원 수익률이 세후 내부투자 수익률보다 여전히 높습니다.

또한, 주주환원이 자본 배치의 하위개념 이외에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두 수익률 간의 우열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향후 3년간 주주환원율 50% 원칙은 유지할 계획입니다.

[자사주 vs. 배당 기준 관련]**Q6. 증기 주주환원 정책 중 자사주 매입과 배당 비율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요?****A6.**

자사주 매입소각 수익률과 요구수익률(현금배당의 수익률)을 비교하여 그 비중을 결정합니다.

자사주 매입소각 수익률은 $1/\text{forward PER}$ 로 계산하고 있으며, 요구수익률은 내부 기준에 따라 10%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소각과 현금배당의 비중은 forward PER에 따라 결정됩니다. ($1/\text{forward PER}$ vs. 10%)

예를 들면, 지난 8월 20일, 7000억원의 자사주 신탁계약 체결 시 당사가 내부적으로 계산하는 forward PER이 10배 ($1/10\text{배} = 10\%$) 보다 낮아, 예년 대비 높은 규모의 자사주 매입 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즉, 자사주 매입소각과 현금배당의 비중은 주가 저평가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Appendix. 자본 배분 방법론 참고)

[자사주 소각에 따른 주식 수 감소 관련]

Q7. 앞으로도 자사주 매입소각 수익률이 우위에 있어 자사주 매입소각을 계속한다면 주식 수가 많이 감소할 것 같은데, 이로 인한 주주환원 정책의 변화가 있을까요?

A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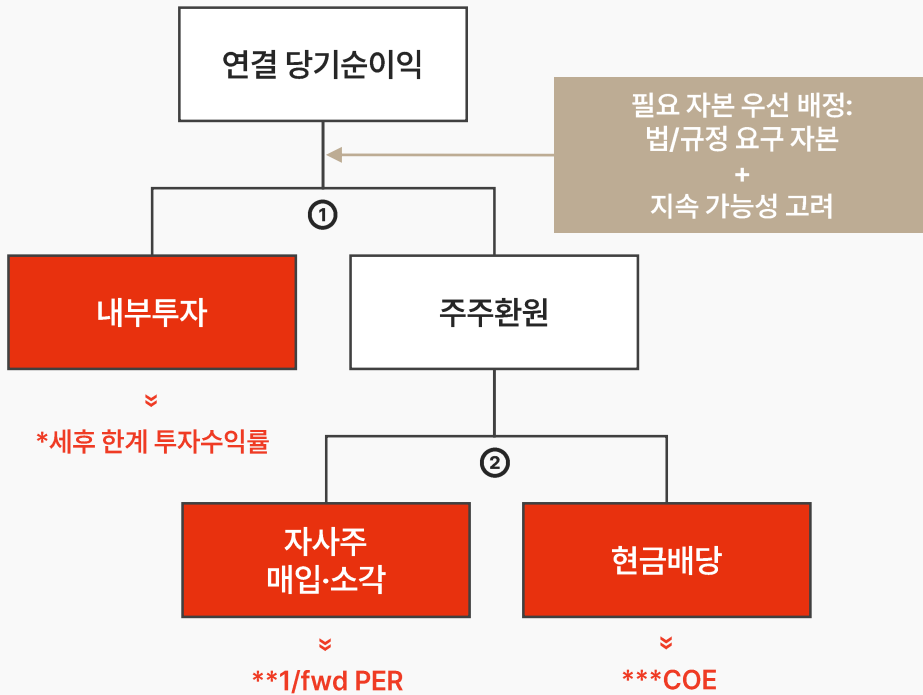
차기 주주환원 정책(2026년~2028년) 기간 동안 단순히 주식수 감소로 인한 주주환원 정책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주식수가 많이 감소하여 저평가가 해소된다면, 현금배당 비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즉, 주식수 감소와 상관없이, 자사주 매입소각 수익률과 요구수익률(COE)을 비교하여

자사주 매입소각 수익률이 여전히 높다면 자사주 매입소각 위주의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할 것이며, 반대의 경우, 현금배당 비중이 증가할 것입니다.

[Appendix] 자본 배분 방법론



당사가 3가지 수익률(내부투자 수익률, 자사주 매입·소각 수익률, 현금배당 수익률) 비교를 통해 자본 배치를 결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음

① 내부투자 vs. 주주환원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 내부투자과 주주환원(자사주 매입·소각, 현금배당) 중 높은 수익률의 방법을 선택

② 자사주 매입·소각 vs. 현금배당

주주환원 수익률이 높을 경우 자사주 매입·소각과 현금배당 수익률을 비교하여 선택하며, 주가의 저평가 수준에 따라 결정

*세후 한계 투자수익률: 투자한 자본의 세후 수익률

e.g.) 내부 유보이익 1조를 투입해 세후 당기순이익이 1,000억 증가하면 세후 한계 수익률은 10%

**1/fwd PER: 자사주 매입·소각 수익률은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해 주식 수가 감소함에 따른 미래 주당 배당금의 현재가치 증가를 의미하며, 실질 수익률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당사는 이는 forward PER의 역수로 계산하여 의사결정

e.g.) fwd PER이 5배이면, 자사주 매입·소각 수익률은 1/5, 20%로 계산할 수 있음

***COE(Cost of equity): 시장에서 보는 메리츠금융지주 주식의 요구수익률

e.g.) 주주가 당사에 투자 했을 때 기대하는 최소한의 수익률. 금리와 시장 환경에 따라 변하지만 이론적 COE를 바탕으로 주주들의 구매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10%'가 적절하다고 생각